

후기구조주의적 신체론에 의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신체표현 연구 -1990년대 이후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김 순 자[†]

상명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A Study on the Expressional Features of Body through Fashion Illustration based upon Post-Structuralism Theory -Focused on Fashion Illustrations since the 1990's-

Soon Ja Kim[†]

Dept. of 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
(2006. 12. 14. 접수)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body images appearing in the fashion illustrations since the 1990's and thereby attempts to determin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xpressional features and aesthetic values in reference to theory of post-structuralism. Especially among numerous post-structuralist, Michel Foucault, Gilles Deleuze/Felix Guattari, and Julia Kristeva set unique arguments on body, which provide valuable leads to decipher the image of body. For that reason, body images shown in the fashion illustration are categorized into grotesque body, fragmented body, humanoid body, and post-gendered body, and reviewed their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 values based on critics of above three scholars.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mage of body entails meaning of an resistance of traditional social concepts and order, and second it serves the purpose of creating a new and unique sense.

Finally, it is not an object of representation of physical facts, but rather a representation of the real itself, apart from presenting the original material.

Given arguments enhance understanding of images of body in fashion illustration in a broader sense.

Key words: Post-structuralism, Fashion illustration, Expressional features; 후기구조주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표현특성

I. 서 론

오늘날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산업의 이미지 미디어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패션트렌드를 선도하

고 더 나아가 예술과 일러스트레이션의 영역을 넘나드는 시각예술로서 자리 잡고 있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인체는 동시대의 패션경향이나 작가의 정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인체변형을 통하여 작가의 패션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고 독창성과 개성을 보다 더 부각시킬 수 있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sjkim@smu.ac.kr

또한 인체변형을 통해 작가는 인체에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현실을 투영시킬 수 있다. 즉 작가는 인체를 자의적으로 변형시켜 표현함으로써 보다 극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거나 상징하고 풍자하며 아름다움과 추함, 진실과 허구를 보다 생생하게 형상화시킬 수 있다(이현주, 1987).

특히 1990년대 이후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인체변형은 극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균형과 조화가 파괴된 찌그러진 모습이거나 갈기갈기 찢어져 있거나 부수어져 있기도 한다. 그러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과기하고 독특한 신체표현을 충격을 통한 메시지의 강화로만 평가한다면 이것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독창적인 예술성의 미적 가치를 간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독특한 신체표현은 육체를 도구화하는 메시지 이상의 작가의 정신적 자유를 표현하려는 의도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다양한 신체이미지를 독해하고 독창적인 예술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방면에서의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신체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연구대상이 된 것은 20세기 후반이며 그 배경에는 신체에 대한 철학적 사회적 의미의 변화가 있다(임은혁, 2006). 특히 후기구조주의는 정신과 신체의 이분법적 논리를 일관되게 지속해 온 서구 철학사에 가장 확실한 반론을 제기 하면서 이전까지 억압의 대상이었던 신체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현대의 신체는 그 자체로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자신의 신체가 원하는 것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본질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는 그 동안 신체를 도외시하고 문화적,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정신성만을 강조한 문화적 편향으로부터 벗어나 신체를 강조함으로써 인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도출을 의미한다.

후기구조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인간행위와 그 산물들을 설명하려는 사고유형 및 인식을 가리키는 이론으로 후기구조주의 학자들의 연구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 모두는 절대적 진리, 영원불변한 실재, 모든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원리들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며 그 신념들의 허구성과 모순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신체표현의 특성을 분석하고 후기구조주의 담론의 호

름 속에서 논의되어 온 신체론을 준거점으로 이러한 신체표현의등장이 의도하거나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패션경향과 미의식을 표현하는 매체로서 뿐 아니라 시대정신을 전달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하였다.

연구방법은 후기구조주의 신체론과 의미는 문헌연구를 위주로 고찰하였고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신체 표현은 패션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관련 서적과 작품집 등에 실린 사진자료를 위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II. 후기구조주의 신체론

본 연구에서는 후기구조주의의 신체담론 중 특별히 미셸 푸코,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줄리아 크레스테바의 신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들은 각기 독특한 신체론을 전개하면서 신체독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1. 권력행사의 장으로서의 신체-미셸 푸코

미셸 푸코는 현재의 신체담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학자라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신체에 대한 관심과 신체에 가해진 권력의 방식을 통해 역사와 인식구조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푸코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푸코, 1975/1989)에서 권력, 지식, 신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인간신체가 다양하고 변화하는 권력이 행사되는 장소임을 그리고 지식이 형성되는 대상임을 보여준다. 미세하게 사회에 퍼져있는 권력은 지식과 연계하여 인간의 신체를 통제한다. 그리고 이는 막강한 힘으로 우리의 행위와 신체 뿐 아니라 마음과 의도까지 만들어낸다. 자연스러운 것, 익숙한 모든 것이 권력의 효과인 것이다.

푸코의 권력개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권력은 제도나 구조가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 부여된 일정한 힘도 아니다. 또한 권력은 소유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이다. 둘째, 권력관계는 다른 형태의 관계들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들 속에 내재되어 있다. 권력관계는 그러한 여러 관계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분배, 불균등, 불균형의 직접적인 효과이며 동시에 이러한 차등화의 내적 조건이기도 하다(김정란, 1993).

셋째,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 저항이 있게 마련이며 저항은 권력의 내부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권력관계는 많은 저항점들이 작용할 때만 작동한다. 푸코의 이론은 뚜렷한 저항의 전략이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특정형태의 권력과 사회통제에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넷째, 권력은 억압적이라기보다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적극적인 힘이다. 권력은 금지하고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권력관계는 단순히 금지 또는 갱신의 역할을 지닌 상부 구조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 효율적인 생산성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며, 쾌락을 유도하고 지식을 생산하고 담화를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한다.

푸코는 권력이 행사되는 장소 중의 하나로 '성'을 선택하여 우리 사회 안에서 작용하는 권력이 본질적으로 억압적인지 묻고 있다. 이것은 푸코가 성의 문제를 억압의 패러다임으로 보지 않고 성을 지식과 권력의 개념으로 이해함을 의미한다. 그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근대 자본주의의 형성과 더불어 어떻게 훈육권력 하에서 순응하게 되었는가의 과정을 추적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에서 규정하는 '아름다움' 혹은 '여성다움'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푸코가 강조하는 것은 여성들이 이러한 미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는 과정은 결코 강제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즉 여성들은 어떠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며 그러한 외모관리가 쾌감과 자신감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푸코, 1976/1990).

위와 같은 권력의 기능은 언제나 그 작용점을 갖는다. 푸코에게 이 작용점이 바로 인간의 신체이다. 또한 푸코는 신체가 권력에 저항하고자 하는 주체의 의지가 발동하는 시발점으로서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이정우, 1993).

2. 욕망이 활동하는 장으로서의 신체-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들뢰즈와 가타리의 신체론은 공동으로 집필한 「앙띠 오이디푸스」(Deleuze & Guattari, 1983)를 통해 전

개되었다. 그들에게 신체는 욕망이 활동하는 장으로 인식된다. 그들은 욕망을 기계라고 칭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모든 기관이 기계적으로 작동되면서도 통일된 체계에 예속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절단되었다가 접속되고 분열하면서 생산하는 자유로운 기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욕망하는 기계는 다른 기계와 늘 쌍을 이루면서 연쇄를 만들어내는데 하나의 기계는 그 흐름을 절단하거나 흐름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또 다른 기계와 만남으로써만 그 특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욕망하는 기계들은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의 우주적 연속체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구성요소들일 뿐이다. 다시 말해 욕망은 생산을 위한 '내적인 심리적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망에 대한 사유와 더불어 신체에 대해 사유하는데 그들에게 신체는 단순히 물리적인 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러한 욕망하는 기계가 작동하고 흐름을 수 있는 장인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전체와 부분이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듯이 신체와 기관이 미리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유기체주의적인 신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유기체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서 초현실주의 예술가인 아르토의 '기관 없는 신체' 개념을 빌려온다. 아르토는 '신체는 신체다. 신체는 혼자이다. 또한 기관(organ)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체는 결코 유기체(organism)가 아니다'라고 말한다(Deleuze & Guattari, 1983). 여기서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관 없는 신체'가 출현한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신체는 욕망이 작동하는 장이며 욕망하는 기계의 탈영토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정되지 않은 것, 흐름으로서의 장인 것이다. 따라서 '기관 없는 신체' 개념은 '기관'을 단순히 없앤 신체가 아니라 '유기체적인 신체'로 한정되지 않는 보다 폭넓은 변용역량을 가진 신체이다. 모든 신체는 유기체가 규정하는 기관들의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변용역량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체는 변용을 통해 주어진 기관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자기 보존 욕구의 본성을 생성시킬 수 있다(신승철, 2003).

따라서 이제 하나의 기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관을 생성시키는 '무한한 변용양태들인 기계들'이 중요하다. 변용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신체는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다름 아닌 '개의 모습으로

변용 가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관 없는 신체'이다. 또한 그것은 사물의 본성인 '근원적인 자기보존의 욕망'으로 충만한 신체이며 그것은 욕망의 내재성의 장이다(신승철, 2003).

3. 충동의 장으로의 비천한 신체-줄리아 크레스테바

정신분석학에 의하면 우리는 상징적인 질서 즉 상징계에 진입하면서 언어의 세계, 다시 말해 의미의 세계에 진입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크레스테바는 신체를 의미화가 일어나는 장소라고 주장하며 주체화 과정이 상징계 이전에 이미 우리의 신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징계 이전의 신체를 그녀는 기호적 신체라고 부른다. 기호적 활동은 신체에서 생겨난 충동의 표시이며 충동이란 의미화를 생산하는 물질의 끊임없는 분열이며 주체가 생성되는 장소이다(Oliver, 1993).

크레스테바의 말처럼 그녀의 기호적인 것이 작용하는 곳은 라캉의 실재와 상상계 사이, 즉 상상계를 거쳐 상징계로 진입하는 실재이다. 크레스테바가 말하는 기호적인 것은 곧 어머니의 공간을 뜻하는데 이것을 그녀는 '기호적 코라(semiotic chora)'라고 부른다. 코라는 '뜸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로서 이는 타자를 포함하고 있는 신체 즉 모체를 의미한다(황록주, 2003).

크레스테바의 신체론을 논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에브젝션'의 개념인데 이것은 그녀의 저서 「공포의 힘;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크레스테바, 1985/2001)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녀가 설명하는 에브젝션이란 한마디로 '공포가 가져다주는 매혹적인 위력'으로 비천하고 공포스러운 사물에 대해 모든 인간이 혐오스러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그것을 탐닉하고 욕망하는 것을 말한다(윤영, 2003). 또한 이것은 정체성, 체계, 질서를 교란하는 어떤 것, 즉 경계, 위치의 결정, 규범을 존중하지 않는 것, 애매모호한 것, 혼성적인 것이다(조수경, 2000).

이러한 에브젝션에 관한 이론은 출산의 예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녀는 이것을 모성적 신체인 코라를 통해 설명하는데, 코라는 주체와 객체 모두를 포함하는 공간, 즉 객체이자 자신에게는 주체가 되는 객체와 주체가 공존하는 모호한 공간으로 분리할 수도 없는 경계선상의 존재이다. 코라에

포함된 객체인 아이는 자궁 안에서 어머니의 일부가 되기도 하면서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체인 모체와 분리되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분리는 상징계인 오이디푸스 단계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나타나게 된다. 유아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몸속에 밀착된 채 체액과 배설물에 파묻혀 즐거움을 느끼지만 주체인 어머니의 신체로부터 독립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어머니에 대한 경계의 설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대한 혐오감이 작용하게 된다. 즉 아이는 어머니를 출생할 때 자신과 함께 배출된 피와 배설물과 같은 오물과 동일하게 여기게 된다. 이와 같이 에브젝션은 주체의 일부였던 것이지만 주체의 통일된 경계를 세우기 위해 거부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주체 안에 존재하는 친숙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 주체의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는 타자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한 타자적인 존재로서 자아와 타자 사이의 공간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려 자아를 분열시키고 쪼개지게 만들기 때문에 '밀어낸다'는 뜻으로서 위협하고 거부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결국 에브젝션은 주체에 친밀하면서도 소외적인 것으로 신체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내가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계로의 원활한 진입이 성공한 후에는 아이는 이 혐오스럽고 역겨운 육체가 과거 자신과 하나였고 아직도 자신의 일부임을 부정할 수 없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코라를 열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크레스테바가 설명하는 에브젝션의 속성이다(차은진, 2002). 그녀는 이러한 이론을 통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한 특성의 집합이 아니라 반대로 남성적 질서를 깨고 그것에 결여된 것을 거꾸로 남성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 특성의 집합이라고 설명한다(윤영, 2003).

III. 후기구조주의의 신체담론의 의미

후기구조주의자들의 신체론을 살펴 본 결과 논자들의 신체론에서는 세 가지 공통된 담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신체는 기존의 전통적 개념이나 질서에 대한 저항의 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저항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장이 된다는 것이며 셋째, 이러한 신체는 순수한 실재 그 자체를 드러내는 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담론의 공통된 함의들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신체이미지가 어

떠난 함의를 담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기존 개념과 질서에 대한 저항의 장

푸코는 신체가 권력에 저항하고자 하는 주체의 의지가 발동하는 시발점이 된다고 하였다. 푸코에게서 권력은 모든 불평등하고 유동적인 관계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행사되는 것으로 모든 관계에서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내적 조건이다(김혜숙, 김혜련, 1999). 따라서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이미 권력을 받을 편의 저항과 투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관계는 물리적, 심리적, 윤리적, 성적, 제도적 장치들 통해서 지역간, 계층간, 집단간, 남녀간 제도간 등등 사회관계의 구석구석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 사람들 간의 분화와 결속을 통제하는 질서의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권력은 언제나 새로운 형태의 저항과 새로운 방식의 가능성을 수반하며 푸코는 신체가 이러한 구축된 질서와 권력에 대한 저항의 장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망하는 기계는 그 출발에서부터 절단을 본성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존하는 질서를 절단하고 또 절단한다. 또한 들뢰즈의 논의 안에서 기관 없는 신체는 끊임없이 욕망하는 기계를 기관화하려는 영토화나 재영토화의 운동과 영토화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탈영토화의 운동을 지속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접합되고 혼용되고 기호화되고 주체화된 상황에서 자유로이 분리되고 해체되고 탈영토화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되는 신체인 것이다. 본질적으로 혁명적인 것으로서의 욕망은 어떤 형태의 사회, 혹은 사회체제도 뒤엎고 전복시킬 수 있다(이진경, 2002).

크레스테바의 애브젝션은 비천한 것, 떼어버리고 싶은 혐오스러운 것을 말한다. 이것은 깨끗하고 고상한 몸에 대한 저항과 거부이며 독립된 하나의 '나'가 되기 위해 밀어내야하는 그 무엇이며 주체와 객체의 경계선에서 주체도 객체도 아닌 어떤 것을 의미한다(그로츠, 1994/2001). 애브젝션은 '밀어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로 애브젝션은 주체에서 과잉의 존재로 여겨져서 거부된 타자성이기도 하며, 자아를 구성하고 저항하기도 하는 행위체로 보고 있다.

2. 새로운 의미 생성의 장

푸코는 모든 의미는 특수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담화 속에서 형성되며, 변하지 않으며, 어느 곳 어느 때나 적용되는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김정란, 1993). 신체는 권력이 행사되는 지점이자 하나의 권력이 실현되는 장소이므로 지식-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가에 따라 변화하는 의미의 발생처가 된다. 그러나 푸코는 권력을 억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신체에 대한 권력의 행사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님을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권력이 강제나 배제 또는 방해와 같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효과를 발휘한다면 권력이란 너무나 깨지기 쉬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권력은 금지나 부정이 아니라 쾌락을 유도하고 지식을 형성하며 담화를 만들어낸다(푸코, 1980/1991). 따라서 권력은 부정적인 것과 동시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억압적이라기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적극적인 힘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기관 없는 신체를 이룬다는 것은 탈기관화 하는 것, 즉 기관으로 고착화된 신체의 일부분을 다시 기관화되기 이전의 신체로 돌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는 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과 거부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체를 재구성하기 위해 이전의 기관들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욕망을 결여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보는 라캉의 정신분석학에 반발하여 욕망을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힘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관 없는 신체'의 욕망은 '대상-결핍의 욕망'이 아니라 '대상-창조'의 욕망임을 분명히 한다. 그들에게 신체는 이러한 욕망이 활동하는 장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욕망을 결여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인 생성의 에너지로 생각하는 것이다(이진경, 2002). 다시 말해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신체의 의미는 자기보존의 욕구로 충만한 신체, 즉 무한히 생성하는 욕망의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크레스테바가 설명하고 있는 의미가 발생하는 곳, 의미화의 논리를 담지하고 있는 곳 또한 신체이다. 그녀는 애브젝션이라는 과정을 통해 부정과 금지의 논리가 이미 어머니의 신체와의 관계에서 성립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의미화의 논리가 이미 기호적 코라내에 각인되어 있다고 말한다. 유아가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성취하는 과정은 자신의 내부를 토약질해냄으로써 그래서 자신의 신체를 애브젝트의 대상으로

만들으로써 자유라는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된다.

3. 실재를 드러내는 장

구조주의는 실재와 가상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상징적 세계라고 하는 제3의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이미지들은 지각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의 기호로 이해되고 그것의 의미와 가치는 지시대상과의 유사성이 아니라 구조 속에서 교환되고 소통되는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결정된다.

푸코는 구조라는 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완결된 체계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불완전한 곳이며 또 항상 역사적으로 특수하게 성립되는 것임을 주장하고 절대적 진리, 영원불변한 실재의 허구성과 모순성을 강조한다(푸코, 1980/1991).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망하는 기계의 역동적인 흐름에 의해서 실재는 언제나 기관 없는 신체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재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들은 실재가 바로 시물라크르라고 말한다. 이것은 보드리야르의 시물라크르와는 달리 실재를 대체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재의 모습 그 자체인 것이다.

크레스테바는 실재를 설명할 때 충동의 개념을 먼저 등장시키면서 충동이란 의미화를 생산하는 물질의 끊임없는 분열이며 주체가 형성되는 장이라고 말한다. 크레스테바는 언어 즉 의미화의 논리는 상징계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녀가 말하는 기호적 신체이다. 신체는 바로 이러한 충동의 장이며 따라서 실재를 드러내는 장인 것이다(황록주, 2003).

IV.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신체 표현의 특성과 미적가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신체, 즉 패션바디는 실제 인체를 그대로 묘사하기보다 패션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변형된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 표현방법이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신체변형은 부분적인 확대와 과장을 통한 변형으로 이러한 과장형 변형에서는 인체는 동일형태를 지니고 있으면서 고유의 비례관계가 깨짐으로 해서 독특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또한 신체는 패션문화 내에서 파악될 수 있는 신체로 그 시대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패션의 특성상 보기 역겨운 것이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은

표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금기를 깨고 최근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추하게 왜곡되고, 부서지고, 혼성적인 신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이고 독특한 신체표현을 그로테스크 신체, 파편화된 신체, 유사인간형 신체, 포스트젠더 신체로 나누어 분석하고 후기구조주의자들의 공통된 신체담론을 준거점으로 그 의미와 미적가치를 고찰하였다.

1. 그로테스크 신체의 표현

그로테스크란 일반적으로 괴기한 것 부조리한 것, 극도로 부자연스러운 것을 뜻하며 필립 톰슨(남미현, 박명희에서 재인용, 2004)은 현대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부조화,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것, 지나침과 과장, 비정상성으로 제시하였다. 과거에서나 현재의 문학과 조형예술에 있어서 그로테스크적 표현을 보면 공통적인 요소로서 인간의 신체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그로테스크는 신체적으로 비정상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신지은,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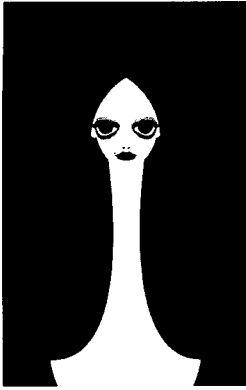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신체는 부분적으로 왜곡되고, 의도적으로 추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내면 깊숙한 부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신체왜곡

왜곡은 모든 예술에서 표현된 상이 실제의 대상과는 다른 차이를 말한다. 왜곡은 추상과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강조하는데 사용되는데 다른 특징에 비해 강조되거나 과장되어 그 부분의 표현적 특징을 부각시키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왜곡된 부분은 엄밀한 사실성과는 거리가 있어 오히려 돋보이게 되며 보는 이의 기억 속에 담겨있는 사물에 대한 정상적인 이미지와 왜곡된 이미지 사이에는 심리적 긴장감이나 연상을 통한 특별한 감정이 유발된다(임은혁, 2006).

<그림 1>의 얼굴은 목부분을 극단적으로 길게 표현하였고, <그림 2>는 다리를 비정상적으로 길게 표현하여 모두 기형적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체 일부를 지나치게 과장시켜 신체형태를 왜곡하는 것은 이상적인 신체가 가져야할 비례와 균형에 대한 저항의 표시이며, 이상적 신체와 실제적



<그림 1>



<그림 2>

<그림 1> Ed Tsuwaki, Pao & Paws(2004), p. 275.

<그림 2> Robert Wagt, Delicatessen(2003), p. 103.

인 신체 사이의 갈등을 표출하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신체의 개념과 경계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고정되고 억압된 폐쇄적인 세계를 유동성과 개방의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것이며 변화된 신체를 통해 새로운 미적가치를 창조해내고 그러한 변이된 신체는 일종의 일탈로서 이를 통해 쾌감을 느끼게 한다.

2) 추한 신체

<그림 3>의 얼굴은 눈썹을 비정상적으로 길게 그려 넣은 독특한 메이크업으로 부자연스럽고 불쾌한 느낌을 주며 공격적이고 위협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한 신체는 전통적 담론 내에서의 미의 개념 자체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분방함과 유희를 느끼게 하는 것



<그림 3>



<그림 4>

<그림 3> Tina Berning, Delicatessen(2003), p. 7.

<그림 4> Buzzelli Kime, Laird Borrelli(2004).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4>에서는 눈 주위에 상처로 인한 피와 멍을 상징하는 것 같은 붉은 부분을 그리고 있다. 얼굴의 표정과 흘러내리는 듯한 붉은 색은 상처를 통한 고통의 이미지를 표현하며 인체파괴에 대한 묘사와 섬뜩한 암시를 통해 황폐해져가는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반영하고 공격성과 가학적 충동으로 야기되는 인간 본능의 폭력적 성향을 표현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인체에 대한 가학적 표현은 신체를 일상의 몸에 대한 탈출과 변용의 장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금기시되었던 신체적 일탈을 통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동시에 쾌감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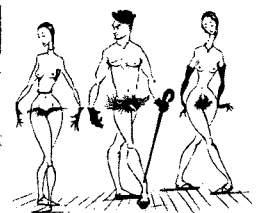
3) 비천한 신체

비천한 신체는 원초적인 신체로서 배설하고 교미하고 먹고, 토하는 본능적인 신체이다. 이것은 여성의 외부적인 모습이 아닌 삶의 본질 속에 잠재하고 있는 자아의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 인간의 내부 깊숙이 들어어있는 인간 영혼의 최악의 것, 더러움, 사악함, 죽음, 등의 이미지를 끌어내 보여주고 있다. 과거 전통적으로 여성의 신체적 특징들 중 여성 성기의 표현, 월경, 임신, 분만 등의 표현은 터부시되어 왔다. 사회적으로 용인된 여성의 신체적 특징만이 노출되어 스테레오 타입적인 여성이미지들이 만들어져왔고 우리는 오랜 역사동안 이 허구의 이미지가 실제의 여성상으로 오인한 사회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허지숙, 2003). 그러나 최근에는 이전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임신, 출산 등의 모성적 신체표현이나 성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등 애브젝션을 매개로 비천함을 고무시키고 있다.

<그림 5>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림 6>에서의 신체는 남녀의 성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성에 대한 노골



<그림 5>



<그림 6>

<그림 5> Berto Martine, Delicatessen(2003), p. 165.

<그림 6> Ruben Toledo, Ruben Toledo(1996).

적인 표현은 금기시되는 에브제션을 고무하여 충격 효과와 함께 혐오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인간존재 속에 밖으로 들어내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자기 고백과 자기 발견의 해방적 기분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천한 신체는 우리의 신체이며 우리의 신체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신체의 천한 실체를 부정하면서부터 우리가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자초하였음을 일깨워준다. 크레스테바의 말처럼 에브제션은 고상한 몸에 대한 저항과 거부이며 주체도 객체도 아닌 어떤 것이다. 그러나 저항과 부인의 의미를 넘어 초월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체가 사회체계나 사회적으로 공유된 신체에 대한 관습과 같은 외적 요인들에 의해 생산되고 결정되는 사회적 산물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신체는 여전히 물리적, 생물적 실체로 남아있다(실링, 1993/1999). 비천한 신체는 신체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실체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자연주의적이며 생태적인 전략을 통해 삶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실재를 더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2. 파편화된 신체의 표현

파편화된 신체는 해체되고 부분으로 분화된 신체의 재조합과정에서 나타난 기형적인 신체이다.

<그림 7>에서 얼굴은 조각난 부분들이 일그러지고 비틀어진 형태로 묘사되어 극도의 불안전하고 비극적인 감정이 표출되어 있다. 또한 <그림 8>에서는 절단된 신체의 그로테스크한 파편들이 우리의 시각체



<그림 7>



<그림 8>

<그림 7> Takahiro Kimura, Pao & Paws(2004), p. 145.

<그림 8> Maren Esdar, Wonderland(2004), p. 98.

계를 교란시키는 기괴한 형상을 띠고 있다. 신체파괴는 표면에 드러난 것을 해체하고 파괴시킴으로써 내재된 존재가치를 재포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원방, 1988). 이러한 신체작업은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하는 신체의 실체를 파헤쳐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길들여졌던 신체를 보는 방식이 허구임을 깨닫게 해준다.

파편화된 신체는 자유로이 분리되고 해체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되는데 이것은 인간내면의 자유로운 욕망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모든 신체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고정적이지 않고 변형 가능한 초신체로서의 유동성을 표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새로운 인간화과정(humanisation)을 통해 인간의 다르게 되고자 하는 혹은 돌연변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다(레비, 1995/2002).

이것은 이상화되고 고정된 여성의 신체를 거부하고 주체로서의 여성 신체를 찾아냈다고 볼 수 있다. 신체는 이리저리 분해하거나 다시 짜 맞추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적극적인 타자화에서 다시 대상으로 보여진 완성된 육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현대소비사회에서 신체의 분열은 현실이 되었다. 만약 충분한 돈이 있다면 얼굴과 몸은 어떤 어울리는 모양으로든 개조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콘택트렌즈를 착용해서 눈동자와 옷의 색깔을 맞출 수도 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통해서 체형을 조절하고 바꾸는 것은 일상적인 일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체파괴는 단지 형태를 파괴하는 행동이 아닌 신체의 범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 신체의 한계를 넘어서 인공적인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신체를 창조함으로써 신체파괴를 통한 새로운 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유사인간형의 표현

유사인간의 신체의 예는 인형, 마네킹, 더미, 꼭두각시 등이다(이주은, 2001). 마네킹이나 더미는 패션을 전달하는 도구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는 유아기의 상징인 인형의 형상이나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전과는 다른 상징성을 드러내고 있다.

인형은 무당의 제단에서 르네상스 시대 화가의 아틀리에에 이르기까지 오랜 과거를 통해 있어 왔는데

이러한 인형의 등장 배경은 이상적인 몸의 불완전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상적 인간형이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으로 여기서 몸은 원이나 정사각형처럼 자신의 기의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기표로서 기능하며 어떤 과잉이나 설명되지 않은 차원, 행동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Mirzoeff, 1995). 이상적인 인간형을 세우는 것은 ‘통일된 몸’, ‘통일된 자아’를 인공적이고 허구적인 방식으로 창출해내는 것이다. 즉 인형을 통해서 이상적 인간형의 허구를 폭로하고 이상적 인간형상과는 다른 차이를 인정하며 소외된 신체라는 새로운 형태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역설적으로 주체를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양민희, 2004).

한편으로 인형의 등장은 유아적이고 퇴행적인 문화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림 9>의 다소곳하게 서 있는 인형은 누군가의 조정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수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인형은 가부장제하에서 수동적이며 현신적인 태도를 갖도록 길들여지는 여아의 모습과 닮아있다. 이것은 인형을 통해 여성들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순종적인 여성이미지에 대한 거부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그림 10>은 조립으로 만들어지는 구체관절 인형과 같은 모습으로 머리부분이 절단된 그대로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있다. 절단된 신체부분을 통해 인간의 신체가 부분적인 것이며, 조절할 수 있고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는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회가 디지털화 되고 가상공간의 피상적인 인간관과 물질화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대상과의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며 감성을 교류할 대상으로 익숙한 인형을 택하게 된다(손이정 외, 2006). 또한 인간은 유아기에 스스로를 완전한 이상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자아도취적 이상에 사로잡혀있는데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러한 어린 시절 갖고 있던 꿈이나 환상 등을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사고들이 결합하여 인형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무생물인 인형을 인간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애착을 갖는 것은 내 개성대로 꾸미고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인형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대리만족을 얻고 외로움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깔려있다(이영선, 2004).

무표정한 인형은 때로는 섬뜩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자기와 똑같이



<그림 9>



<그림 10>

<그림 9> Thierry Pere, Laird Borrelliz(2000).

<그림 10> Nawel, Laird Borrelliz(2004).

생긴 사람을 발견할 때 느끼는 감정, 즉 ‘괴이함(the uncanny)’의 느낌이다. 인형이 괴이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대해 전적인 친숙함과 전적인 낯설음이 양자의 모순된 관계 속에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와 흡사함을 통해서 나를 타자화 시킨다. 타자의 의미는 ‘죽음’ 혹은 ‘자기부재’라고 할 수 있으며 타자, 죽음은 모두 ‘자기 몸 밖’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자와의 대화나 접합이란 ‘자기 몸 밖과의 대화’를 의미한다. 인형은 ‘나의 동일한 반복’이 아닌 ‘나의 타자화’로서의 인형, 바로 이 점이 인형이 가지는 존재론적 딜레마이며 이 딜레마는 인형의 존재 자체가 일탈의 한 형태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와의 동일성을 통해 자신의 타자성과 접합시킨다. 그러나 죽음과 같이 절대적인 타자나, 절대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타자가 아니라 실존하는 타자인 것이다(이주은, 2001).

4. 포스트 젠더적 신체

포스트 젠더는 젠더의 이분법을 초월하는 제3의 성 또는 ‘벡스트 젠더’를 지향하는데 여성, 남성 뿐 아니라 여성성, 남성성의 구분을 흐리게 함으로써 단일한 정체성의 환상을 전면 거부한다(이창렬, 2004). 들뢰즈가 말하는 ‘육망하는 기계들’에서의 인간적이지 않은 성은 한 주체 속에 하나의 성, 또는 두 개의 성이 아니라 n개의 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남녀의 구분을 원하지 않고 복수정체성을 강조하며(김지혜, 2001) 크레스테바의 비천한 신체 또한 성의 고유함이나 단일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사이버 문화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컴퓨터 통신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거나 새로운



<그림 11>

<그림 11> Minami Kenzo, Laird Borrelliz(2004)

<그림 12> Container, Wonderland(2004), p.8



<그림 12>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현실세계에서 사이보그의 출현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해체하여 진정한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림 11>은 기계부품으로 이루어진 사이보그 이미지를 통해 미래의 신체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사이보그는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형태로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재조직화된 신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김은희, 2002). ‘허구의 창조물인 동시에 사회적 실재의 피조물’인 사이보그는(해러웨이, 1991/2001)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지닌 이중의 신체이며 남성인 동시에 여성인 양성의 그로테스크 바디이다. 또한 사이보그는 기술에 의한 신체의 연장을 보여주며 이러한 탈신체는 자아와 타자의 경계가 사라지는 동일화를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체는 기계와의 결합 뿐 아니라 <그림 12>와 같이 동물, 식물 등, 이질적인 요소들과 결합하여 주어진 신체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신체변형을 시도한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과 동물의 결합이 아니라 둘 사이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다. 이것은 진화의 방향을 거

슬러 동물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퇴행이 아니라 ‘창조적이며 동시에 역행하는’ 것이다(진중권, 2003). 이러한 창조적 생성은 인간이 자신을 하나의 정체성에 한정시키지 않고 모든 것이 가능한 원초적 신체의 장, 즉 충동의 장이며 실재를 드러내는 장으로 돌아가 타자라는 인식론적 경계를 허물고 다른 것과의 접속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 젠더의 특성을 지닌 신체는 남성, 여성의 이분법적 구도를 교란시키고 이를 뛰어넘어 남녀가 모두 소외의 주체이며 성적 특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또한 양성화는 신체의 비천함을 드러내며 그 발상 자체는 기존의 부계 질서에 대한 위반이자 반발이다. 이것은 또한 기존에 있던 신체의 개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신체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1990년대 이후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하고, 파편화되고, 혼성적인 신체는 이상적인 신체형에 대한 허구를 폭로하고 미에 대한 관습적, 전통적 고정개념이나 전통적인 여성이미지를 거부하고 부계질서에 대해 도전하는 의미를 표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과 도전의 의미는 새로운 미적가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신체 개념과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삶의 진실한 모습을 통해 실재를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의 신체를 원초적 충동을 가진 신체 그 자체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재된 존재가치를 찾으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독특한 신체표현이 후기구조주의의 신체담론인 전통적 개념과 질서에 대한 저항, 새로운 의미의 생성, 실재를 드러내는 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를 후기구조주의의 신체담론을 준거점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후기구조주의의 신체담론과 신체표현의 의미

신체표현	그로테스크 신체	파편화된 신체	유사인간형 신체	포스트젠더 신체
신체담론				
기존 개념과 질서에 대한 저항	이상적 신체와 미적개념에 대한 도전과 거부	미적 고정관념에 대한 저항	전통적 여성이미지에 대한 거부	부계질서에 대한 반발
새로운 의미의 생성	· 새로운 미적가치 생성 · 새로운 의미의 신체창조	새로운 미의 창조	새로운 관계의 생성	새로운 정체성 창조
실재의 드러냄	· 원초적 신체표현	내재된 존재 가치의 드러냄	실존하는 타자의 드러냄	사회적 실재의 구현
	· 실재의 여성이미지의 드러냄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많은 후기구조주의 학자들 중에서 깊이 있는 신체론을 펼치고 있는 미셸 푸코와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그리고 줄리아 크레스테바의 연구를 살펴보고 그들이 신체를 통해 시사하고 있는 바를 신체이미지 독해의 유용한 의미의 지점으로 삼고 분석하였다.

후기구조주의의 신체론을 통한 이러한 분석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을 이해할 때 간과되기 쉬운 미술 외적인 상황들을 함께 점검해 가면서 객관적 독해의 길을 열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신체표현이 단순히 정보 전달과 유희주의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련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논의의 커다란 틀 안에서 하나의 토론의 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속에 나타난 신체이미지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등장하는 것에 대해 내린 전통 개념이나 질서에 대한 저항의 장, 새로운 의미 생성의 장, 실재구현의 장으로의 신체라는 의미 분석의 결과는 후기구조주의의 신체담론의 의미와 일치할 뿐 아니라 오늘날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시대정신을 전달하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충실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신체이미지의 의미분석을 후기구조주의의 신체담론에 근거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회적 이슈와의 관련성을 간과하였다는 점과, 광범위한 사회현상과 정신분석학적 의미를 포함하는 후기구조주의의 신체론을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장하는 오류의 수반가능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신체표현기법을 철학적 사회적 관점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고찰함으로써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또한 현 상황의 문제의식들을 고유의 표현방식으로 구현해내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신체이미지의 의미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그로츠, 엘리자베스. (1994). *피부우스의 띠로서의 몸*. 임옥희 옮김 (2001). 서울: 여이 연.

- 김원방. (1998). *잔혹극 속의 현대미술-몸과 권력 사이에서-*. 서울: 예경.
- 김은희. (2002). *복식에 표현된 몸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정란. (1993). *푸코 권력 이론의 여성 해방적 함의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혜. (2001). *현대미술에 나타난 신체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숙, 김혜련. (1999). *예술과 사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남미현, 박명희. (2004). *현대패션의 그로테스크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4(8), 147-162.
- 레비, 피에르. (1995). *디지털시대의 가상현실*. 전재연 옮김 (2002). 서울: 궁리
- 손이정, 이인영, 이인성. (2006). *구체 관절 인형의 상징성과 인형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복식*, 56(7), 42-53.
- 신승철. (2003). *들뢰즈/가타리의 욕망론과 신체론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지은. (2001). *조형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적 표현과 신체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실링, 크리스. (1993). *몸의 사회학*. 임인숙 옮김 (1999). 서울: 나남 출판.
- 양민희. (2004). *바디아트에 있어서 신체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 영. (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잔혹성 이미지 연구-크레스테바 이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선. (2004). *인형의상의 발전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우. (1993). *미셸 푸코에 있어 신체와 권력*. *문화과학*, 4, 96.
- 이주은. (2001). *현대미술에 나타난 신체미술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경. (2002). *노마디즘1-새로운 삶을 탐사하는 사유의 여행-*. 서울: 휴머니스트.
- 이창렬. (2004). *신체미술을 통한 표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주. (1987). *현대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인체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은혁. (2005). *복식에 표현된 몸의 재현성과 비재현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수경. (2000). *현대조각에 있어서 색유얼리티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중권. (2003). *진중권의 현대미술 강의*. 파주: (주)아트박스.
- 차은진. (2002). *에브젝트(abjection)로 표현된 의상*. *복식*, 52(1), 18-27.
- 푸코, 미셸. (1975). *감시와 처벌*. 박홍규 옮김 (1989).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 푸코, 미셸. (1976). *성의 역사 1: 생애의 의지*. 이규현 옮김

- (1990). 서울: 나남 출판.
- 푸코, 미셸. (1980).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홍성민 옮김 (1991). 서울: 나남 출판.
- 크레스테바, 줄리아. (1985). *공포의 권력*. 서민원 옮김 (2001). 서울: 동문선.
- 해러웨이, 다나. (1991).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민경숙 옮김 (2001). 서울: 동문선.
- 황록주. (2003). *1990년대 미술에 나타나는 신체이미지*.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지숙. (2003). *신디 셔먼 작품에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이미지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orrelli, L. (2000). *Fashion illustration now*. London: Thames & Hudson Ltd.
- Borrelli, L. (2004). *Fashion illustration next*. San Francisco: Chronicle Books.
- Delicatessen, D. (2003). *Fashionize: The art of fashion illustration*. Italy: Happybooks.
- Deleuze, G & Guattari, F. (1983).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Hurley, R., Seem, M., & Lane, H. R., Trans). Minneapolis and London: Univ. of Minnesot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4).
- Klantan, B., Ehmann, S., & Meyer, B. (2004). *Wonderland*. Berlin: Die Gestalten Verlag.
- Mirzoeff, N. (1995). *Bodyscape: Art, modernity and the ideal figur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Oliver, K. (1993). *Reading kristeva-unraveling the double-bind*.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 Press.
- Pointer, A. & Zeegen, L. (2004). *Clin d'oeil: A new look at modern Illustration*. Amsterdam: Bis Publisher.
- Toledo, R. (1996). *Style dictionary*. New York: Abbeville Press.